

조계종, 아이티 봉사단 긴급 파견

동국대 의료진 10명 등 18명...8일간 구호활동 전개

본지 임태규 기자 동행

아이티 지진참사 이후 기금 모금 등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조계종이 아이티 현지까지 자비의 손길을 펼친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월28일 종무회의에서 조계종 의료봉사단을 아이티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조계종 의료봉사단은 총무원 사회국장 자승스님을 단장으로, 동국대 의료원 소속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 구호지원요원, 현지 지원인력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1월30일 오후 봉사단 1진 출발을 시작으로, 2월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종단차원에서 해외구호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지난 2004년 동남아 쓰나미 피해를 시작으로 이번이 5번째다.

조계종 의료봉사단이 활동할 장소는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인근 델마 33번지로, 기존 의료팀의 캠프가 설치된 지역이다. 조계종 사회부는 아이티 현지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의료팀이 활동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전했다.

봉사단은 여러 구호단체들과 협력해 현지 주민에 대한 응급치료, 전염병 예방과 함께 간단한 수술도 집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에도 참여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아이티가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내용을 파악하는 활동도 진행해, 의료봉사단 이후에도 구호사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총무원 사회부장 해경스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력을 내준 봉사단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처님 자비사상이 의료봉사단

을 통해 아낌없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티 지진참사가 발생한 직후, 구호기금 모연을 통해 자비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조계종은 현지 한인회와 구호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봉사단 파견 등 지원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해왔다.

지진발생 초기 구호물품 지원사업에 집중하기로 했으나 아이티 구호단체들의 인력 파견 요청이 쇄도하자

봉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의료봉사단은 총무원 사회부와 동국대의료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긴급재난구호봉사대, 더프라미스, 아름다운동행 등이 참여하게 되며, 본지 임태규 기자도 동행해 현지의 안타까운 상황과 조계종 봉사단의 구호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조계종 아이티 긴급구호의료봉사단이 총무원장 자승스님(사진 가운데)과 함께 지난 1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료봉사단은 2월3일부터 2월10일까지 현지에서 자비행을 펼친다.

아이티 향한 불교계 자비행 ‘계속’

해인사 월정사 고운사 봉선사 등 성금전달

아이티 지진참사가 발생하지 보름을 넘겨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불교계의 온정은 줄어들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해인총림 해인사와 제4교구본사 월정사, 16교구본사 고운사, 25교구본사 봉선사 등 전국 사찰과 단체들은 지난 1월28일 아름다운동행에 아이티 구호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하루 구호기금을 전달한 사찰과 단체는 10곳에 이른다. 해인사가 1000만원, 월정사가 1000만원, 고운사가 1000만원, 봉선사가 1181만원을 내놓았다. 또 강화사암연합회가

1000만원, 백련불교문화재단이 1000만원, 서울 불광사가 500만원, 대전비구니정림회가 539만6000원, 한국불교기자협회가 100만원을 각각 보냈다.

특히 통도사승가대학에서도 333만360원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아이티 돕기에 동참한 사찰과 단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통도사승가대학 학인들이 용돈을 모아 성금을 모금했고 율원과 선원도 동참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학인스님들을 칭찬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 봉선사 주지 인묵스님, 월정사 부주지 원택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스님, 강화사 암연합회장 해경스님, 불광사 포교국장 봉곤스님, 대전비구니정림회장 호경스님, 안직수 한국불교기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동행과 본지를 통해 성금을 기탁하는 사찰과 불자들의 보시행도 계속 이어져, 1월28일 오후12시 현재 모두 2억6000여만 원의 구호기금이 담겼다. ▶명단 3면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社告

‘표준법요집’ 편찬 위한 의견수렴

불교신문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표준법요집〉 편찬 연구를 진행하며 종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동사업을 전개합니다. 포교연구실 ‘표준법요집 편찬연구위원회’가 보내는 〈표준법요집〉은 종단의 각종 한글 및 한문 의례·의식의 절차를 통일해 종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지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종단 소속 사찰은 앞으로 〈표준법요집〉의 의례·의식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편찬 불사는 매우 중요한 중책입니다.

따라서 본지는 수요일자 신문 1개면에 격주로 10회에 걸쳐 표준법요집의 핵심내용과 함께 추진과정 등을 소개하고 종도들의 의견을 구할 계획입니다. 종도들의 관심과 참여가 표준법요집을 한층 정확하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론문이나 여러 의견을 보내주시면 포교연구실과의 협의를 거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16면

문의전화: 포교연구실 (02)2011-1910

대표메일: yousong@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불교신문

총무원장 자승스님 평양 방문

30일부터...총무·사회부장, 해인사 주지 동행

총무원 “남북민간-종교교류 물꼬 틀 것” 기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평양을 방문한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으로 방북한다. (1월29일 현재) 총무원장 스님의 평양방문에는 총무부장 영답스님, 사회부장 해경스님,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 등이 수행한다. 총무원장 스님은 방북 기간 동안 북

측의 민화협과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들을 만나 남북의 민간교류와 불교교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을 마치고 나면 평양 용화사, 법운암, 보현사 등을 참배할 계획이다.

총무원 기획실은 지난 1월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방북은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남북관계를 인간의 활발한 교류로부터 풀어야한다는 총무원장 스님의 의지에 따라 전격 결정된 것”이라며 “총무원장 스님은 평소 ‘소통과 화합은 현장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사회 제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남북문제도 민족 종교인 불교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방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의 평양 방문과 관련 조계종 대변인 원답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이번 방문은 종교교류를 넘어 경쟁되어 있는 남북 민간교류와 불교교류의 물꼬를 틀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북측과 허심탄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포 사격이 며칠째 계속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총무원장 스님의 행보가 향후 남북의 긴장관계를 해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수 기자 scoolee@ibulgyo.com

경찰관, 심야 스님폭행 ‘물의’

총무원 국장 스님들, 경기경찰청 항의 방문

“철저한 진상조사·경찰청장 공식사과” 요구

만취한 경찰관이 심야에 사찰 경내에서 스님을 폭행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종단 차원에서 공문 발송과 직접 방문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의 엄중 문책 등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만당스님과 조사국장 선웅스님 등 총무원 국장스님들은 지난 1월27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기획국장 만당스님은 윤재욱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직접 항의 공문을 전달했다. 만당스님은 “오늘 경찰청 불자회 법회가 있는 날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로 방문하게 돼 유감스럽다”고 발언을 열었다. 이어 만당스님은 “초기 경찰에서 축소 의혹이 있었는데 철저한 진상조사가 돼야 하며, 폭행 경찰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며 “아울러 경찰의 근무기강 해이에 따른 사건이므로 기강 확립과 함께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찰청장이 종단을 방문해 공식 사과해줄 것도 요구했다. ▶관련 기사 5면

이에 대해 윤재욱 청장은 “소속 경찰들의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종단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청장은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한 후 조사내용을 정리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만당스님, 선웅스님을 비롯해 박용규 총무차장, 공승관 호법팀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총무원 호법부장 덕문스님은 경기지방경찰청에 항의의 공문을 발송했다. 덕문스님은 공문을 통해 “지관스님 폭행사건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거나 용인될 수 없다”며 “국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본연의 자제를 망각한 채 성직자 신분을 인지도고도 폭언과 폭행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공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하영 기자

2면에 계속

‘조계종과 진흥원·불교방송 관계정립’ 토론회

3면



이땅 남쪽의 맨 끄트머리에 자리잡은 미항사.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폐사에 가까운, 퇴락한 ‘옛절’이었다. 하지만 그 궁벽한 산골 절을 찾는 사람이 이제 1년에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 그곳에 머물며 템플스테이 하고 싶다고 발길을 두는 사람도 매해 5천 명을 넘어선다. 이 궁벽한 산골의 작은 절은 어떻게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됐을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장점을 발견해내고
세상과 소통하며 호흡하는 수행자의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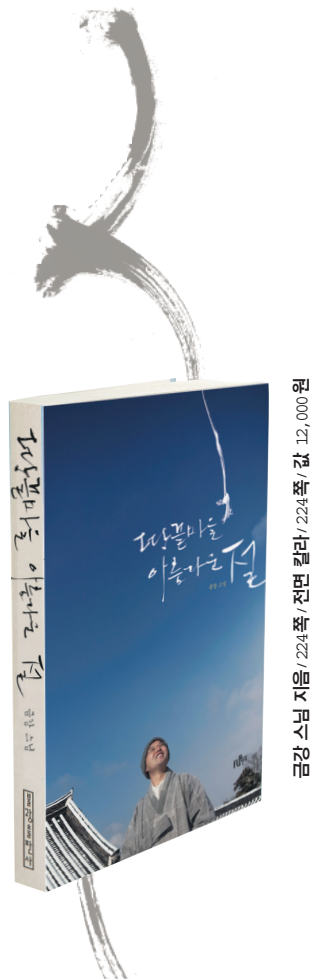
책에는 땅끝마을의 해님·해맞이와 새벽예불의 감동, 발우공양·참선·운력 등 사찰의 일상과 365일의 풍경이 잔잔하게 펼쳐져 있다. _한국경제

마을과 절, 일과 수행, 승가와 재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미항사 안팎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진다. _한겨레

불교계 안팎에서 ‘산중 사찰의 모델’로 평가받기까지의 과정, 절집의 세세한 일상, 수행자로서의 스님의 생각 등이 담백한 글로 고스란히 담겼다. _경향신문

금강스님은 2000년 미항사 주지로 부임한 이후 땅끝마을의 작은 절을 어느 명산대찰 못지않은 전국적 유명 사찰로 ‘픽은’ 주인공이다.

그가 지난 10년을 회고한 책 역시 사람 이야기가 가득하다. _조선일보



금강스님 지음 224쪽·전면 컬러·221쪽·값 12,000원